

김천시, 쿠광 물류센터 유치... 물류·교통 허브도시 도약

AI 활용 시스템 등 첨단장비 도입 쿠광, 2022년까지 1000억 투자 고용유발 등 1조 경제효과 기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현장사진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1위 기업인 쿠광이 김천에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경북권 최대 규모의 쿠광 첨단 물류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김천시는 이번 물류센터 유치로 1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일 김천시와 쿠광은 지난 달 11일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천시가 쿠광이 물류 인프라를 확장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차례 쿠광 본사를 방문해 노력한 성과다. 지난 7월에는 김충섭 시장이 직접 쿠광 본사를 방문하여 투자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쿠광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8만7916㎡(2만7000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4만7453㎡(1만4354평)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 준공예정인 김천 물류센터는 쿠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관리 및 작업자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천 첨단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제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커 지역의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광은 “여성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물류센터

인력을 포함해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광 김천 첨단물류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대구, 대전 물류센터를 지원함과 동시에 경북 서북부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 등 국내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김천은 명실상부한 물류·교통의 허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김천산업단지 주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시켜 지역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광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매, 세수확보 증대, 인근 상권형성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직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유통물류산업의 동반성장 이의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부속자재, 운영장비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부수적 파급효과까지 직간접 경제유발 효과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준 쿠광 대표이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쿠광은 더 높은 고객경험을 만들고 고객들이 이 경험을 당연한 일상으로 느끼도록 계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현대ARC코리아, 동희산업, 아주스틸, 쿠광 등 14개사에 4495억원 투자 및 198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총 132개사에 8,34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 gi2136@metroseoul.co.kr

안성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확장

안성시는 동부권 개발의 발판이 될 충주권 광역상수도 추가 배분량(1만 400톤/일) 확정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수시설 확장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안성시는 현재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일일 1만㎡ 공급받고 있으며,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1년 이후부터 일일 1만400㎡가 더 늘어난 2만400㎡를 공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송·배수관로 34km를 확장하고, 4000㎡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며, 당목가압장을 증설(6000㎡/일)하는 등 2024년까지 수수 시설 확충에 들어간다.

수수시설 확충 사업에는 총 사업비 310억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안성(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전북과학대~신월교차로) 전면개통.

다시 시작된 감염공포... 지자체, 코로나 차단방역 총력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 포천 군부대, 36명 확진자 발생 대부분 제한된 상황, 깜깜이 감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군 당국이 포천 지역 전 부대 외출을 통제했다. 사진은 5일 코로나19가 발생한 부대 위병소의 모습. /연합뉴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상 근무가 시작된 5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 군부대에서는 지난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5일 오전까지 무려 3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한 상태다. 군 당국과 포천시·경기도는 부대원 230여명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역학조

사를 벌이며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지난 4일 차오름요양원에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3일 첫 환

자가 발생한 뒤 입소자 9명, 요양보호사 1명, 추가 전파 1명 등 모두 11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이 요양원 입소자 97명과 종사자 7명 등 104명에 대해 이날 오전 2차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남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일 오전까지 모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온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명이 추가 확진돼 연관 확진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 병원 6층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 26명을 동일집단 격리 중이며 직원, 퇴원환자, 보호자 등 159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해당 지자체는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군부대가 있는 포천시는 군부대 인근 공장지대와 민가의 방역을 강화했다. 포천에서는 지난 2월 22일 6군단에서 6명, 7월 22~24일 8사단 예하 4개 부대에서 18명, 지난달 11~12일 군인 가족 4명이 집단 발병한 바 있다.

부산시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감염이 재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오전 0시부터 11일까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업종 등 고위험시설 6종,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욕탕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정읍시 첨단산업 연결도로 개통

정읍시가 총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국도 1호선 신월교차로까지 총연장 1.4km,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지난달 28일 전면개통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6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 7월 착공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도로개통으로 신정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광주농기센터 스마트팜 고도화 추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ICT 스마트팜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현장실증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CT 스마트팜 통합 관제시스템’은 광주지역 시설재배 농가의 온실환경과 작물 생장 데이터 등 농업환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 내 온도와 습도 등 수집된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고 수확량을 예측 기능을 제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경북도, 102회 전국체육대회 내년 10월 개최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순연됐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일정을 확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전방을 원점에서 재구성 하는 등 새롭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구미시민운동장 등 12개 시·군 71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구미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가 2021년 10월 8-14일까지 개최일정 확정 했다. /경북도

시민운동장 등 11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선수단과 임원 및 보호자 등 8천5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전남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곡성군 선정

내년부터 10년간 사업비 75억 투입

전라남도가 임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에 나선 결과 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은 경영면적 규모·집단화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개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산림청 주관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 평가 등 심사와정을 거쳐 곡성군을 포함 전국에서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곡성 ‘선도 산림경영단지’에는 내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75억 원(국비 70%)이 투입된다.

앞으로 곡성군의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불량림을 정비해 수익을 산주에게 돌려주고 가치있는 목재생산을 위해 편백, 상수리 등 경제림을 육성하게 된다.